

“서로 인정할 실력 갖자”

“내가 너 뛰어 넘을거야”



박준표



박동민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동갑내기 박준표·박동민 ‘잠수함’ 계보 있다는

준표, 파워·경험... 동민, 경기 운영능력·밸런스 강점

경쟁과 웃음이 함께했던 5320호였다. KIA는 편한 선수들끼리 방을 구성해 마무리 캠프를 치렀다. 고된 훈련이 끝나고 편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5320호는 ‘잠수함 계보’를 잇기 위한 방이었다. 정통과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이드암 박준표(23)와 박동민(23)은 이번 캠프의 룸메이트였다.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을 한 두 사람은 방에서는 투닥투닥 장난도 치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며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 야구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던 날도 많았다. 재미있게 하지만 진지하게 보낸 경쟁자이자 친구의 캠프. 이번 마무리 캠프는 두 친구의 첫 동반 캠프이기도 하다.

박준표는 2012년 2년제 동갑대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든 3년차. 변화 무쌍한 커브로 상대를 현혹하며 1군 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차세대 잠수함 유망주다. 박동민은 아직 정식으로 1군 무대를 밟아 보지 못한 육성선수다. 올 시즌 동갑대를 졸업한 그는 부상으로 뒤늦게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프로 도전을 시작했다. 다른 시즌을 보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유형의 같은 나이의 친구다. 같은 원로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기도 하다.

박준표는 “올 시즌을 보내면서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 기복이 심하다. 안 좋은 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했다. 와인드업을 하지 않고 던지는 쪽으로 바뀌보기도 했다. 나는 힘으로 누르는 유형이다. 하체를 더 쓰고, 힘을 키워야 한다. 운동량 많이 늘리고 자신있게 하겠다. 어렸을 때부터 마운드에서 자신

없는 모습이 싫었다. 볼볼 하는 것도 있다. 마운드에서 시원시원하게 공을 던지는 투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재미있는 친구이자 경쟁자인 박동민에 대해서는 “폼에 대한 것, 야구 이야기 많이 했다. 정말 성실한 친구다.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동민이가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동민은 “후회 없이 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캠프에 왔고, 열심히 한 것 같다. 부상 때문에 중간에 팀에 왔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옆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신다. 시합 때 제구, 스피드가 많이 부족했는데 웨이트 많이 하고 폼도 조금 바꿨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유동훈 코치님을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웠다. 이번 캠프에서 싱커도 많이 연습했다”고 말했다.

박준표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넘어서야 하는 경쟁자이다.

박동민은 “준표는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사이다. 준표보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처음 팀에 왔을 때는 길게 보고 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캠프를 하면서 목표를 수정했다. 내년 1군을 목표로 캠프 잘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타이거즈 잠수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유동훈 코치는 박준표의 파워·경험, 박동민의 경기 운영 능력·밸런스를 주목하며 후계자 육성에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이 정제된 타이거즈 잠수함 마운드를 움직이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기초수급 190여 가구에 ‘사랑의 쌀’

타이거즈 소식

KIA 타이거즈가 지역민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한다.

KIA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들이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가정에 쌀 3760kg을 전달하며 지역민 사랑을 실천한다.

이들은 직접 188가정을 방문해 20kg 들이 쌀 1포대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의 쌀’은 KIA 구단과 구장 임점 업체인 미니스톱이 실시할 해 마련했다. 구단은 올 시즌 운영한 물품보관함 수익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했고, 미니스톱은 임점 당시 구단과 맺은 사회공헌 협약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를 보냈다.

이날 전달할 쌀은 KIA의 전용 연습구장인 ‘챌린저스 필드’의 소재지인 함평지역 특산물(함평나비쌀)로,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함평군이 할인 제공한다. 선수단은 이날 쌀 배달에 앞서 경기장 인근 광주전과 임동 지역 골목길을 돌며 정화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선수단 상조회장 이범호는 “그동안 야구장 주변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의견을 구단과 나눠왔는데, 올해 그 뜻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면서 “비록 넉넉

하지 않지만 홀몸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A타이거즈 관계자도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6 캐치프레이즈 공모

KIA 타이거즈가 2016시즌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캐치프레이즈는 ‘V11’을 향한 필승 의지와 함께 팬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KIA의 방향성이 함축된 표현이어야 한다. 공모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KIA 타이거즈 팬이라면 누구나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선정작은 1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캐치프레이즈 최종 선정작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즈, LG 대신 일본 라쿠텐

레다메스 리즈(32)가 한국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구애를 거절하고,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 동지를 틀었다.

일본 닛산스포츠는 26일 “라쿠텐이 리즈와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리즈는 구단을 통해 “라쿠텐 일원이 되어 기쁘다. 챔피언을 목표로 전력으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닛산스포츠는 “리즈는 올해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었다.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가 주 무기이고 LG에서 뛸 때 시속 161km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리즈는 2011~2013년, 3시즌 동안 LG에서 뛰며 26승 38패 5세이브 평균자책점 3.51로 활약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14경기 1승 4패 평균자책점 4.24,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는 16경기(선발 10경기) 4승 5패 평균자책점 1.40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시원한 덩크슛

지난 25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열린 토론토 랩터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간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중 드래레 캐롤(가운데·랩터스)이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랩터스는 캐벌리어스에 103대 99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황재균은 어필할까 롯데 ML 포스팅 요청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황재균(28·롯데 자이언츠)의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소식을 전했다.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한국프로야구 3루수 황재균이 포스팅 절차를 밟는다”며 “황재균은 한국에서 9시즌을 뛰며 타율 0.280, 88홈런, 481타점을 기록한 타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2014년에는 128경기에 나서 타율

0.321, 26홈런을 쳤고, 올해에는 97타점을 올렸다”고 황재균이 개인 최고 성적을 기록한 2014년과 2015년을 소개했다.

MLB닷컴은 “황재균이 한 시즌 더 뛰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포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이적료가 롯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롯데는 26일 KBO에 황재균의 메이저

리그 포스팅 참가를 위한 공식 요청을 할 예정이다.

팀 동료 손아섭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이 유찰되면서 황재균에게 기회가 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KBO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황재균의 포스팅 신청 사실을 알린다. 이 순간부터 나흘 동안 비공개 입찰이 열린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입찰이 끝나면 최고 응찰액을 KBO를 통해 통보하며, 롯데는 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프리미어12 우승 김인식 감독 ‘2015 일구대상’ 수상

세계랭킹 상위 12개국 야구 국가대표전인 프리미어12 첫 대회에서 한국야구를 정상에 올려놓은 김인식 감독이 2015년 일구대상을 받는다.



한국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이재환)는 2015 넷마블 마구마구 일구상의 10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영예의 일구대상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내린 프리미어12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한 ‘국민감독’ 김인식 감독에게 돌아갔다.

김 감독은 2009년에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구대상을 수상했다.

일구회는 “이 때문에 김 감독은 이번 수상을 극구 사양했지만 선정위원회 전원이 간곡히 청해 유일하게 두 차례 일구대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최고 타자상은 2년 연속 50홈런 이상을 친 넥센 박병호, 최고 투수상은 프리미어12 대회에서 활약한 삼성 차우찬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인상에는 타격 부문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삼성 구자욱이 뽑혔다. 의지노력상은 올해 두산의 주전 3루수 자리를 꿰차고 국가대표까지 발탁된 허경민이 받는다. 프로 사령탑 데뷔 첫해 두산에 14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안긴 김태형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한다.

프린트상도 역시 두산의 몫이 됐다. 이민호 KBO 심판위원은 심판상, 35년 만에 선린인터넷고를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끈 윤석환 감독은 아마지지도자상 수상자로 뽑혔다.

/연합뉴스